

# 농촌 인력 부족 전방위 지원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전북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영농작업반 총가동·농촌일손 돕기 추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사업 1억5000만원 투입 등 총력 대응

전라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도는 농촌인력 공급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0개소 내 313개 반 4,920명의 영농작업반 인력풀을 총가동해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과 농협, 자원봉사자, 사회봉사 명령자, 대학생 등을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중개의 부족한 틈새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내 대학생을 활용한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내 17개 대학과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 홍보 포스터 500부를 배포해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한 대학생 농촌일손 돕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대학생은 자원봉사인 무급과 유급 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이나 시·군의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유급 근로는 희망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우선

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급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는 지원봉사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며, 대학별 봉사시간 학점 인정조건에 따라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유급 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농가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센터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와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주어진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내국인 유류인력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사업에 예산 1억5,000만원(3개 시·군 428명)을 투입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에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가 부담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로 월 36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464명 배정됐으나, 코로나19로 당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한

다.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라 F-1(방문동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중 MOU 방식(송출국 귀국보증서 필요)에 비해 귀국보증서 면제로 도입이 쉬운 결혼이민자 친척 추천 방식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국내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격리 비용(14일) 일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고, 내국인 인력 공급도 여의찮아 농촌에 일손 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대학생 등 자원봉사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우선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 체계 가동

최근 기온·습도 상승으로 세균성 장관감염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전북도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철저한 개인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적기에 대응하고자 시·군 보건소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하절기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감염병 발생 개연성이 높고, 외식의 증가나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집단급식 운영에 따라 집단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감염병 발생의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2인 이상 집단 식사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향토인재장학생 168명 선발

전북도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내 출신 대학생 168명을 향토인재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1억 3,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2월 17일 선발계획을 발표하고,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총 711명이 신청해 약 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진흥원은 학업성적 60%, 가정형편 40%를 기준으로 신청자를 심사했다.

숙고 끝에 시·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출신 대학생 168명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올해 5437명 대상·자부담 9만6000원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 받을 수 있어

전북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소비를 촉진하고, 임산부 건강을 증진하고자 올해 도내 5,437명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임산부들에게 자부담 9만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mall.com)을 활용하거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종류



는 시·군별 공급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는 도내 4개 공급업체가 임산부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필수적으로 공급하도록 공통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품목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확인 및 지도하고 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 및 육아에 애쓰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만큼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산부가정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드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섬유 공동브랜드 ‘올라벨’ 인지도 높인다

### 제작 제품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다양한 판촉활동 실시

전북 섬유 공동브랜드인 ‘올라벨(OLLABEL)’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신세계몰),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도는 예코융합섬유연구원과 도내 섬유 기업이 함께 만든 브랜드인 ‘올라벨(OLLABEL)’이 SSG닷컴, 옥션, 11번가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라벨(OLLABEL)’은 실한 가치를 뜻하는 우리말 ‘올’과 우수 제품 인증의 의미인 ‘라벨(LABEL)’의 합성어다.

전북도가 친환경 원료와 가공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예코융합섬유연구원이 지원해 도내 섬유 기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 섬유제품 공동브랜드다.

이번에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제품은 국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인 홀리넘버세븐(HOLY NUMBER 7)과 협업을 통해 도내 섬유기업이 제작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올라벨 공동브랜드 사업에 도내 8개 섬유 기업을 선별했다.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와의 1:1 매칭을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춘 타겟(target) 제품군의 소재와 디자인, 제품, 판매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그 종류만도 랩핑용 침낭, 토퍼, 한지 소재의 숙웃, 양말 등 31건에 달한다.



전북 섬유 공동브랜드 올라벨 개발 제품.

도는 신세계몰(SSG닷컴), 옥션, 11번가 판매와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올라벨, 홀리넘버세븐, 인플루언서 공식계정 등) 활용 등 다양한 판촉 활동으로 올라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성명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맞춘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올라벨 공동브랜드가 도내 섬유산업

의 수익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상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상품개발단계부터 마케팅, 시제품 제작, 판매까지 전주기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도내 지원 기업 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